

제433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2일(목)

장 소 재정경제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1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1

(15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이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며, 이형일 재정경제부제1차관 및 임기근 기획예산처차관은 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현안 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양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217938)
2.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안번호 2217939)

(15시04분)

○위원장 임이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재정경제기획부장관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

박홍근 장관님 계시는데 항상 같이해 가지고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나오셔서 재정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경제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안정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재정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초과세수 활용 등 추경의 재원대책과 함께 지방채 인수 및 국고채 이자상환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17조 2993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를 반영하여 20조 633억 원을 증액한 반면 공자기금 예수금 2조 7613억 원과 특별회계전입금 2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4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방채 인수 확대, 국고채 이자상환 증액, 국고채 원금 추가 상환 및 타 회계·기금의 예탁규모 조정 등을 통해 조달·운용 규모를 328조 4837억 원에서 328조 815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정경제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예산처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해운·물류 비용 상승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 26.2

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편성하고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선순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예비비 증액 등의 지출소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138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4조 7099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전입금 4조 848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9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를 5조 증액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4조 709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획예산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으로 임광현 국세청장 나오셔서 국세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국세청 추경예산안에는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신속한 실태확인을 위해 금번 추경안에 2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태확인원 인건비 384억 원과 관리단 운영비 250억 원 등 총 6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각 부처에서 개별법에 따라 제각각 관리하여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국세외수입 징수 업무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징수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추세이며 우리 지방세외수입 통합징수도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징수에 앞서 그간 체계적 관리가 미흡했던 국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정확한 실태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번 추경안에는 384만 명의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

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7000명을 채용, 운영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인건비 944억 원과 운영비 556억 원 등 총 15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국세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가재정의 핵심 두 축인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하는 동시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쉬었음 상태를 벗어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백승보 조달청장 나오셔서 조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백승보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문화 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조달시장 구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업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격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해 선량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수주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건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채용, 임차료 등 예산 2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달청이 주어진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병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에 입력되어 있는 검토보고 요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자료 2페이지입니다.

국세수입 경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4개 세목에서 29.9조 원을 증액 경정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에 대해서는 4.7조 원을 감액 경정하여 본예산 390.2조 원 대비 25.2조 원을 증액한 415.4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세입 여건을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 일부 산업 분야의 실적 예상치만을 근거로 한 증액 결정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중 이른 시점에 초과세수 전망치만을 전제로 세입을 증액한 것은 실제 세수 흐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가정과 예측에 의존하여 세수를 전망하는 측면이 강해 연도 내 잔여기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세수 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처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조 원 증액된 9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증액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5조 원의 증액 규모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나프타 수급위기 대응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각 용처별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아 그 구체성이 떨어져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깊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며,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의 시행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경우 최고가격의 지속 예상 기간, 유가 예측 수준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정보의 외부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그 세부적인 편성 근거를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보고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목적예비비 지출 용도로 포함된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고유가 및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지출의 범위가 모호하여 정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으므로 지출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도별 증액 규모를 예산총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세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첫째, 압류재산 공매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세 체납관리단 사업은 2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하여 본예산 대비 634억 200만 원 증액된 734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본예산에 반영된 인원인 400명보다 100명이 초과된 5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였는데 채용 이후 한 달밖에 경과하지 않아 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현원 대비 500%에 해당하는 2500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본예산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방문실태확인원의 증원 규모에 비하여 동행 공무원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세무서별 체납관리팀 및 타 부서 공무원 차출에 따라 기존 세정 업무의 공백이 우려되며 채용 위탁 기관 공고 및 선정기간을 고려할 때 채용일정이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용기간과 연동된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신규 내역사업으로 1499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확인을 위하여 7000명의 실태확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반 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근거 법률안 심사 결과에 따라 실태확인의 대상이 되는 국세외수입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이에 맞추어 예산 규모가 연동될 필요가 있으며 조직 규모

및 역량 대비 과도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세청 본연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시범운영하는 방안 또는 관련 법령 마련 및 조직 정비 등을 선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입력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표에 따라서 실시하고 주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양당 간사님들의 합의하에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임광현 국세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방금 전문위원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 질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저희 업무보고 할 때 청장님 못 나오서 가지고……

청장님,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때도 문제 됐던 세무법인 선택의 인화식 세무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종사촌 관계다라고 하면 세무법인 선택과 국세청장님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게 돼서 되게 중요한 문제고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신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됐든 그래서 인화식 세무사랑 국세청장님이 이종사촌 관계인 건 맞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청문회 때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무법인 선택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저하고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로 오려고 퇴직한 이후에는 그 세무법인과는 연락도 하지 않고 업무상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 아니요 청장님,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종사촌 관계인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요 청장님, 우리가 그때 당시 세무법인 선택 질의할 때 인화식 세무사라는 사람을 명시해서 저도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하고 박성훈 위원님이셨던 것 같은데 문제 제기하시면서 관련이 있냐 없냐를 물었습니다.

왜 저희가 물었냐 하면 그때 세무법인 선택이 매출액도 매년 수십억씩 오를 정도였고 또 일반적인 세무법인과 다르게 바로바로 수익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고 수십억씩 그걸 쟁여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다. 또 인화식 세무사라는 분이 굉장히 젊은 분인데 국세청 차장 출신을 모셔 놓고 이분이 지분을 99%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구심이 들어서 인화식 세무사랑 관련성이 있냐 여쭙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장님께서 관련성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세무법인 선택 퇴직 이후에 세무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천하람 위원 아니요……

○국세청장 임광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매출액은 그 구성원들의 합계였고……

○천하람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왜 이 사람하고 이종사촌 관계인 것 숨기셨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땃땃하면 숨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숨긴 적이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저희가 인화식 세무사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여쭙했을 때 왜 관련 없다고 하신 겁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때 답변을 정확하게 보시면 세무법인 선택을 퇴직한 이후에는 세무법인 선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만약에 인사청문회에 정정당당하게 말씀하실 거면 인화식 세무사와 이종사촌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람과 어떤 문제 될 만한 거래를 하거나 금전 관계가 없다고 하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보세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하람 위원 아니에요. 그때 이종사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말씀도 제대로 밝히지 않으셨고 끝까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거기 있는 인화식 세무사는 이미 개인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저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재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청장은 어떤 개별 신고나 조사에 대한 보고나 결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해충돌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국민들 관점에서.

국세청장님이 원래 국세청 차장 하시고 나와서 세무법인에 있다가 거기의 구성원과 친인척 관계가 있어요. 이종사촌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국세청장 임광현 친인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천하람 위원 아니요, 일단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

○국세청장 임광현 그 인화식 세무사가 직업인으로서, 세무사로서의 업을 영위를 해 왔었습니다.

○천하람 위원 잠시만요, 청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임이자 청장님, 잠깐 스톱.

청장님, 답변시간 충분히 배려할 테니까 위원이 질의할 때는 방해하지 마시고요. 듣고 답변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국민들 관점에서 세무법인 선택의 인화식 세무사와 국세청장님이

가족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이게 국민들께 정확하게 공개가 되고 나서 이해충돌이 안 되는지 이것은 국민들이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드렸는데도 끝까지 감추다가 언론보도가 나왔는데도 저희에게 제대로 된 보고 안 해 주시고 계속해서 감추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밝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상충이 없다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지만 국세 체납관리단도 500명 하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셔 가지고 지금 1만 명을 뽑겠다고 하시는데 대통령 말씀을 선별적으로 따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위증한 것 엄단하라 그랬는데 왜 그 말씀 안 따릅니까? 대통령 그 말씀에 따르면 이것은 위증죄로 고발도 해야 되고 최소한 사퇴라도 하셔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종사촌인 것을 숨겨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문제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제가 숨긴 적이 없습니다. 한번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린 것은 세무법인 선택 퇴직 이후에 그쪽과는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본질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단은……

○천하람 위원 아니요, 그것은 말장난이고요.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천하람 위원 만약에 떴했으면 인사청문회할 때 ‘제가 세무법인 선택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는 인화식이라는 사람하고 이종사촌 관계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해관계도 전혀 문제 없고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걸 다 숨겨 놓고 말장난으로 ‘퇴직한 이후에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것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 말씀의 취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확하게 같습니다. 전혀 지금 이해……

○천하람 위원 그게 뭐가 같아요? 알고 판단하는 거랑 숨기고 판단하는 게 국민들 관점에서 똑같은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언제 숨겼습니까?

○천하람 위원 숨긴 거지요, 그것.

○국세청장 임광현 다시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하람 위원 인사청문회 때 이종사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종사촌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게 중요한지 안 한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게 왜 안 중요해요?

○국세청장 임광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있었던 구성원들, 세무사나 회계사들은 다 개인적으로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사람들과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해충돌의 소

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도 말씀을 드리면……

○**천하람 위원** 세무법인의 세무사랑 국세청장이 이중사촌 관계인 게 국민들 봤을 때 이해상충 우려가 없다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임이자** 천하람 위원님 다음 보충질의하시고요.

○**천하람 위원**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천하람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김영진 위원님 가만히 계세요.

임광현 국세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십시오.

○**국세청장 임광현** 하여튼 그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매출은 세무사·회계사들의, 구성원의 합이라는 점하고 그다음에 그 세무법인에 돌아갈 일이 없다는 점을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 말씀을 하셨는데 국세청의 누적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국감 때마다 누적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 지적을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행정력 미흡으로 못 했는데 이번에 일제 정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보니까 국세 체납관리단 예산 약 600억 원 증액했고 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통합징수 예산으로 1500억 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단순 인건비 지출 사업이 아니라 방금 임광현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체납 관리를 좀 더 행정적으로 이번 기회에 조사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예산으로 잡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세수를 적극적으로, 지금같이 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효과적인 재정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에 요청을 해서 국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점검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2024년 기준으로 해서 284조 원의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이 중에 미수납액이 무려 25조 1000억 원 있고요. 특히 불납결손, 즉 거두어질 수 없는 수익으로 최종 결정된 게 1조 4000억 원에 이르더라고요. 현재 국세징수율이 약 90% 수준인데 국세외수입은 아시는 것처럼 부처별로 분산해서 관리되고 또한 체납 징수·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 변상금 이러한 징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더라고요. 특히 추정금 징수율은 1%밖에 못 미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체납 관련 사업은 기존에 거둬들이지 못했던 세수에 대해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현재 국세청의 통합징수 추진단 예측에 따라 보니

까 약 15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면 약 8000억 원 정도의 징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체납 징수 관련된 개별 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부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세외수입만 수십조 원의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하여튼 이제는 세금을 안 내고는 대한민국에서 정당하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강화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세외수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 봤자 한두 명 이래 가지고는 진짜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국세청은 국세수입에 대해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징수하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맡겨 가지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국세청이 아마 금년에 한 8000억 더 걷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통합할 필요성에서는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악성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해야 됩니다. 세금 안 내는 걸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서비스와 연결해 가지고 이분들은 벗어나게 하고 악성은 제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이런 노력을 하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생계형 체납의 경우에는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것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번에 징수 관련된 인력들을 뽑았더니 아마 13 대 1 정도의 꽤 높은 경쟁률로 사람들이 모였고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에 추가 모집되는 인력들의, 특히 청년층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부총리 말씀처럼 관련해서 이번 기회에 세금을 내지 않고는 절대, 정부가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임광현 청장님,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징수 역량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전 부처에 확산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결국 국은 아까 얘기했던 징수요원들의 생계형 관련해서 현장 서비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세외수입 포털을 통해서 납부 현황, 납부내역 조회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기보다는 기존 시스템과 연계해서 정보화 계획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현재 국세외수입 체납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 포함해서 연계 활용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반드시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은 아껴 쓰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알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부총리님, 매년 세수가 언제는 수십조 원 부족하고 또 언제는 남는다더니 그새 또 추경을 하고 이렇게 널뛰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경기변동이 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는……

○윤영석 위원 이렇게 되면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재정이라는 것은 국가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지출할지 아주 효율적으로 짜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가 없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그게 바로 재정경제부가 또 기획예산처가 그걸 가지고, 그것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정말 정부가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윤영석 위원 그리고 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지금 보니까요……

○윤영석 위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사과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지금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올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 같은데 우선 사과라도 하고 말이지요. 불과 3, 4개월 전에 본예산 통과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 면목이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제 입장에는 면목이 없을 것 같아. 국민들한테 한마디라도 사과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반도체 경기가요 작년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한……

○윤영석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앞으로도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정부라면 3, 4개월 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측도 못 하는 정부가 뭐 하러 필요 있습니까? 예측하는 연구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국채 발행해 가지고 추경 했지요. 돈이 남으면 채무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부족할 때는 빚내 가지고 추경 하고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하면 채무 상환은 하지 않고 그냥 돈 쓰고. 이것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이 내용을 뜯어봐도 결국은 매표행위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매표행위예요, 매표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렇게 국정 운영해서 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는 완전히 중독에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지금 이것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유가에 따른 업종별 피해 분석 자료, 뭔가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출이 고유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었다 그다음에 실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된다 또 그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다 이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윤영석 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런 자료도 없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70%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하겠다는데 이게 보니까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거의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현금성 살포를 하는 긴급 구호 대상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드릴까요?

○윤영석 위원 이것은 완전히 지방선거를 위한 매표 예산이다. 전쟁 예산 제가 보기에 설득력 없습니다, 그냥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 빌미로 구실로 삼아 가지고 선거에서 한번 이겨 보겠다고. 참 과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는 이번 추경이 결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 추경 또는 선거용 추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OECD가 당장 우리 성장 전망률을 2.1에서 1.7로 0.4%나 낮추지 않았습니까?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누가 더 선제적으로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 성적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유가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알다시피 수출 의존도도 높고 또 중동의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석유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말 그대로 방파제 역할이자 그리고 도약판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방파제 역할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큰 데, 아까 자료제출을 못 하셨다고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가령 지금 수출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다 타격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들과 관련해서 수출기업들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운임과 관련된 바우처라든가 또 중동 현지에서의 공동물류센터라든가 이것 지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을 해야지요.

그리고 수출 관련된 정책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7.1조를 공급하는데 기업들이 이로 인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경색에……

○윤영석 위원 장관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국가적인 고유가 위기라든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진심을 가지고 편성을 해야 돼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진심을 담았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런 가구를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에 빠진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다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표를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 편성을 한다면 매표성, 선심성 전부 다 삭제하십시오. 삭감하시고, 정부 스스로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윤 위원님, 고유가 피해를 받지 않은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설계를 3단계로 한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영석 위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야지요, 먼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그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영석 위원 아니, 4인 가구 대상 1000만 원이 뭐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어떻게 1000만 원이 돼요?

○윤영석 위원 거의 된다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잠깐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어떻게 돼요, 1000만 원이?

○윤영석 위원 4인 가구 대상이 된다니까요, 974만 원.

○정일영 위원 다음 질의가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얼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가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단계로 설계를 한 겁니다. 첫 번째가 전 국민들, 이번에 석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최고가격제를 한 거고요. 거기다가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급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아랫 단계가 소위 서민과 중산층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마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위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소득 150%에 해당됩니다. 보통 이것을 우리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까지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분들은 고소득층에 비해서는 이번 중동 상황으로 인해 피해를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0%까지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취약한 농어민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라든가 또는 유가연동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층층이 구성을 한, 그래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구성된 추경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장관님,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일단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말로 진정으로 시급해서 지원해야 될 데는 가격도 잘라 버리고 아직 시급하지도 않은 데는 예산이 대폭 증액해 있고. 조금 이따 제 차례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은 정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정일영 위원입니다.

기획처 박홍근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첫 상임위 출석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주 업무 과약을 정확하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경 26조 2000억 원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신속하게 타이밍 맞게 정부에서 잘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 특사로 최근에 몇 나라 가 봤는데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대응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또 민주당의 중동전쟁특위 위원으로 어저께 석유, 나프타 여수산단을 가 봤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모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에 특히 국채발행을 안 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빛이 들어나는 것 아니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미가 참 크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보려고 그러는데 금년도 본예산의 집행실적 퍼센티지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그래도 좀 앞당겨서 경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4분기에 대해서 집행실적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한 32%가량이던가요?

○정일영 위원 예, 그러면 빠르네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지방정부와 지방교육행정 단위까지 저희가 매우 독려를 해 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요. 그리고 추경도 일단 국회 통과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언제 바로 집행이…… 한 4월 중하순부터 시작됩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국회에서 여야가 12일에 합의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로서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알다시피 국회에서 처리되면 저희는 다음 토요일일지라도 국무회의를 바로 열고 그 오후에는 재정집행회의를 차관급이 주재해서 준비를 할 참입니다.

이 추경은 지방에 공동 대응 투자, 소위 매칭이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지방정부에 4.7조 또 지방교육재정에 4.8조를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그래요, 장관님, 잘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특히 예비비에 관심이 많은데, 예비비가 이번에 5조 원 편성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석유 최고가격 이걸 언제까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말씀하시기가 어떤가요? 이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5조 원이 편성돼 있는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상황이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종전선언을 했어도 그것을 수습하는 데 매우 많은……

○정일영 위원 시간이 걸리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왜냐하면 공급망이 지금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장기화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두 분기, 즉 6개월 치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6개월 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정일영 위원 하여튼 정유사의 손실보전 하는 게 4조 2000억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정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이런 때, 위기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분석해서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부총리, 재경부장관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지난번에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하고 논의를 하고 진척되는 게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이렇게, 저희 한 국에서 봤을 때 좀……

○정일영 위원 전쟁 상황이지만 계속 잘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데 민생 현장 가 보고 계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자주 가 보셨으면 좋겠고.

주식, 주가도 걱정이지만 우선 환율이 걱정인데요 한 1520원 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물가상승도 초래하고 중소기업도 무지하게 어려운데 환율 대책 있으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환율은 지금 대외적인 중동 변수에 따라서 플럭추에이션(fluctuation)이 심합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31일 날 환율 안정을 위한 3중 세트 해서 3법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정일영 위원 그게 지금 효과가 아직 안 나오지요? 나오고 있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쪽도 지금 현재 한 8만 계좌 정도가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영 위원 환율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한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정일영 위원 국민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국세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정일영 위원 국세 체납관리단, 110조가 체납액인데 체납관리단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이 중에 한 30조라도 걷히면 우리가 또 국가경제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이나 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세외 체납 그것도 어느 정도나 징수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백승보 예.

○정일영 위원 조달청장님은 건설공사비 입찰자격 관련해서 페이퍼컴퍼니 퇴출 문제로 해 가지고 26억 신청하셨잖아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일영 위원 그게 반영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페이퍼컴퍼니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

국세청장님, 조달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우선 국세 체납관리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납부됐고요 그 이후에 분납 약속을 한 부분들이 또 납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투입 예산 대비 한 3배에서 많게는 한 8배까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측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적어도 한 3배 정도의 투입 예산 대비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 비해서 더 금액이 작습니다,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적은 부분들은 독려를 하면 더 징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 등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그것보다 더 높은 징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잘해 주시고요.

조달청장님.

○조달청장 백승보 저희도 지난해 페이퍼컴퍼니를 거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했고요. 저희가 시범사업 결과 입찰참가자 중에 한 20% 정도가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전에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약 30% 정도가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억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 건설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20~30%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전부 퇴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조달청장 백승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진성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경안 편성을 제1임무로 시작하시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렸고 빠른 시간 내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추경안 작성 과정에서 막 코피를 쏟은 직원들도 많이 속출했다고 그러던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애쓴 직원들 각별하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제가 청문 과정에서 질문으로 장관께 당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당부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K-패스를 반값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관련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제 기대하고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K-패스 두 종류가 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하나는 정률형으로 환급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정액형으로 환급해 주는 게 있는데 정액형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환급되는 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모두의카드예요. K-패스 시즌2지요. 그런데 이것의 환급은 전혀 설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 반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진 위원님 말씀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설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제도를 다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본형을 기본으로 해서 더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환급률을 높여 주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정액권을 더 할인하는 것도 추가해 달라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자칫…… 이게 이미 기이용자들이 추가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서울 같은 경우 기후동행카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더 추가했을 때 갈아타기 효과만 있고 신규 대중교통 이용자가 적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더 저렴하니까.

○진성준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에서 발행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모두의카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의논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이후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두 번째로 가정용 배란다 태양광, 저도 1가구 1태양광 보급 운동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반영되었습니다. 좋은데, 이게 기존의 사업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됐어요, 중앙정부 25% 부담, 지방정부 50% 부담, 본인 부담 25%. 그런데 지방정부가 제대로 매칭할까 좀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일들을 해서 본인 부담이나 지방정부의 부담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 배란대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알다시피 그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라면 그중에 25%가 국

비 지원입니다.

○진성준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저희들은 이번에 물량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반영됐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비를 좀 더 높이자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진성준 위원 하나 더……

나프타,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주로 전부 수입해서 쓴단 말이 지요. 그런데 페비닐이나 폐플라스틱을 가열하면 거기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나프타의 원료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 예산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재활용하면 얼마든지 나프타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활용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의 선별작업을 통해서 고순도의 나프타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말씀 주신 재활용 수거·선별 이런 인프라를 좀 더 넓히는 것에 대해서 검토할 생각이 고요. 이번 추경 관련해서는 이미 폐플라스틱을 포함해 가지고 R&D 작업들이 진행된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또 예타를 통과했고요. 이 R&D 예산 관련된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할 때 심사를 할까 합니다.

○진성준 위원 이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조금 더 논의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진성준 위원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은 올 2월로 종료되는데 이번 고유가 사태를 맞아 가지고 4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경유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환경을 생각하나 뭐 하나. 그렇지만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30초만……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진성준 위원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4월까지만 말고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중동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좀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거기에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야유회 가거나 뭐 이럴 때 전세버스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전세버스의 70%는 통근용·통학용으로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근·통학용은 이를테면 대중교통적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이 주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4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닫혀 있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

라서 신축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학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부분이 통학용이고 어느 부분이 통학용이 아닌지 판단하기가 사실상…… 집행 과정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성준 위원 학교나 회사를 통해서 계약 상황을 점검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하루 단위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장기 계약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농업용 등유와 LPG에 대해서는 이번에 유가보조금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경유는 안 되어 있는데 이제 모내기하고 본격적으로 트랙터 막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록 농업용 기름들은 다 면세유이긴 하지만 기름값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농업용 경유에 대해서도 저는 유가보조금 검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번 추경에서 보조금으로는 일단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함께 의논하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진성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권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문회 때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으로 업무를 시작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결국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박홍근 장관님께 질의했을 때 추경에 대해서 상시적인 재정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부합하고 효과성 있는 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엄밀히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서 크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처장관에 임명하신 게 그러니까 비경제 전문가, 전문가라면 학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부처에 근무했거나 이런 면에서 비전문가로서는 최초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인 장관이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막아 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는 반면 거꾸로 어떤 면에서는 행정을 지나치게 정치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는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후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 자체는 회계연도 시작한 지 한 세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번 이란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그 주름살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거는 필요한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앞에서 운영석 위원님하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이게 매표형 포폴리즘 예산이고 지방선거 선심용 추경이고 그리고 가장 중립적으로 얘기해 봐야 이재명 대통령 추경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추경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2008년도 경제위기 당시, 그때도 고유가가 있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제일 비슷하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 본예산 대비 그때는 한 1.7%, 지금은 한 3.5%니까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뭐 좋습니다, 금액 자체는 두 배가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잘돼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당시에는, 그때 2008년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도 일부만 지급할 정도로 그야말로 표적 지원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줍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줄 수 있으면 100% 주지요 뭐 하러 70%를 합니까?’, 우리 당에서도 왜 30% 안 주냐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 우리가 100% 다 주고 이렇게 인심 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영화·공연 할인, 문화비 지원 이런 부분 그 양반들 도와드릴 필요가 있지요. 우리 문화 입국을 하기 위해서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전쟁 추경입니까? 그리고 놓여준 기본소득 사업지까지 이렇게 추가시키는 이런 것이 선거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거라는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추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전쟁이 시작한 게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 날 시작하기 전 1월 달에 벌써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된다, 추경 기회가 있을 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 잘 검토해 달라, 문화예술 분야 집중 늘리겠다. 신년 기자회견, 이거 다 1월 달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가창업시대라고 하면서 창업 오디션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것도 다 이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국세 체납관리단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전쟁하고 뭘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경기를 계속해서 더 살린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고물가·고환율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썼을 때 인플레가 더 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번에는…… 선거 지금 솔직히 말해서 유리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더 이기려고 지금 이릅니까? 참 답답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고.

국세 체납관리단 같은 경우도 지금 국세가 잘 걷혀 가지고 25조를, 그것도 지금 시기가 아닌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해 가지고 지역에 또 한 10억 가까이 퍼 주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 걷히는 상황에서 지금 더 걷기 위해 가지고 국세 체납관리단, 거기에 국세외 체납관리단까지 그것도 추경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심사되는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빨리 건 빼고 더할 건 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경유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 더 줘야지요.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K-패스 또 거기에 추가된 패스가 있다는데 그런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최고가격제를 해 가지고 정유사라든지 이런 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 예비비에서 5조가량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그 사람들 손해를 끼쳐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겠지요, 부당한 이득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희들이 만나 보면 그 사람들 하고 지금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답니다. 이거 5조도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넣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하는 거는 박홍근 장관님 제가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그다음에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권영세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각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총괄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이번 추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말씀처럼 굳이 추경을 편성해서 선거에 도움되게 하려고 했다는 생각을 추호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너무나 큰 변수가,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의 경기침체 부분을 제대로 방어할 거냐 이 취지에서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특히 이로 인해서 더 어려워진 분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쪽 말씀하신 내용들 청년들, 농어촌 지역들, 문화산업 분야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피해를 많이 받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방어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걸 위원 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월 산업활동동향 같이 보시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중동사태 직격탄을 맞기 전의 우리 경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해요.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거든요. 생산이 3.3%, 소비 4.7, 투자가 11.5, 이게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지요. 보면 결국에는 첨단산업과 투자 중심으로 우리 성장세가 회복을 좀 했다. 결국에는 우리 국가 산업 경쟁력도 높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이 강화되는 모습에 경제 회복세가 나타난 거지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안도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흐름이 중동전쟁으로 우리가 복병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지금 엄청 올랐지요. 두 배 가까이 올랐고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프타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지금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OECD가 금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0.9%p 상향을 좀 시켰네요. 그리고 물가상승은 결국 내수 위축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미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만에 꺾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하고 있고 OECD가 한 중간 정도 돼요. 보니까 여기가 우리 성장률을 금년에 2.1이었는데 1.7로 0.4%p 정도 낮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잘못하면 우리 경제가 다시 잠재성장률 2% 이하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경고가 울린 거 아니겠습니까?

부총리님, 이번에 26.2조 추경 하면 올해 성장률 몇 퍼센트 정도 올릴 수가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한 0.2 정도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경제 예측 기관에서 예상하는 경제 하락분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수준인 거지요. 그래서 이 규모가 결코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경기 보장 조치를 또 하셔야 될 걸로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정도 추경은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한 투자 주도의 경제 반동, 내수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피해자 지원하고 더해서 또 경기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양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처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선거 현금 살포다, 재정 포퓰리즘이다 말씀 있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지요. 유가 폭등으로 무너져 가는 우리 서민의 삶, 소상공인의 삶을 지키는 응급 수혈이다, 그리고 산업 또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붕괴를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 추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처장관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 다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걸 비단 우리 정부 안에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중동 상황 이후에 추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KDI, 조세연 등 연구기관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추경이 여러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회복이 한창 되다가 지금 위축될, 어려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긴급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안도결 위원**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추경은 선택이 아니고 일종의 필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건 속도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왕에 하기로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지출이 현장에 투입돼야만 재정 승수효과가 그대로 나서 경기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0.2%p 효과를 얘기했는데 그것도 추경이 언제 편성되느냐, 언제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대한, 국회 심사를 우리가 재촉을 좀 하겠습니다. 국회 심사에 철저하게 임해 주셔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코피를 쏟은 서기관이 하치승·김지수 서기관 그리고 김상민 사무관이라고 그러네요. 저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 본 사람이라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는데 항상 덕이 많으신 장관님께서 우리 직원들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날밤 샐 겁니다. 그것도 잘 좀……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통령께서도 이 소식을 어제 기사를 통해서 듣고 저녁에 SNS를 통해서 공개 칭찬을 해 주셔서 직원들이 많이 힘을 얻은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박홍근 장관님,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뭐 하셨어요, 요맘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4년 전 요맘때요?

○**김영진 위원** 원내대표 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2022년부터 23년……

○**김영진 위원** 2022년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22년 3월부터……

○**김영진 위원** 3월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추경 담당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김영진 위원**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가 2022년 마지막 코로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총액이 정부 제출안이 59조였고, 직접적인 지원은 36조, 지방에 대한 지원은 23조 해서 59조를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3조 증액해서 62조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에도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그게 5월 10일 추경이었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였는데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추경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원성과 고통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버티지 못한다, 이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협조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직접지원이 36조였어요. 우리가 시간은 4년 전이지만 371만 명에 대해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특고·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에 대해서 200~300만 원씩 이런 정도로 과감하게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표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어려운 분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어려운 직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는 최소한의 추경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여야가 합의했던 과정이었고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그 속도를 늦추거나 하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26조 원의 추경에 대해서 매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추경이고 고유가 부담에 대해서 전 국민 유
류비 지원 5조, 고유가 피해 지원 5조 정도, 나머지 산업피해지원금 해서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흥근** 예, 철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
으로 해서 민생안정, 경기대응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26조 원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대승적으로 4
월 10일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저는 여야가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서 실제로 동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역에서, 벌써 전쟁이 한 달 정도 됐는데 실제 소비가 확 죽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은 없는데 전쟁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입니다. 에너
지…… 유류가 급격히, 한마디로 경유·휘발유가 급격히 오르면서 거기에 대한 피부적으
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길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비가 확 줄었어요.
실제 여러분들 지역에 가서 식당이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가 보면 그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방과제를 놓지 않으면, 정부가 예측했던 올해 2% 성장을 기
관에서 1.7% 내렸고 세계 기관에서도 그런데 더 추락하게 되면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
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 필요한 추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저희들로 봐서는 OECD에서 최근에 1.7%까지 이
렇게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실제로 기관에서도 세계경제 평균에 대해서는 높낮이가 없다
고 봤는데 중동 유가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과 유로존에 대해서는
0.4%의 다운이 있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재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을 했
고 미국은 중동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성장률에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유로존은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꼭 무슨 경기대응보다도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지원
해 주면 또 경기 효과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추경이라고 생각하
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큰 방향에서 저는 필요한 추경이고…… 그러면 유가 지원 관련해서 지
금 최고유가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에 대한, 정유사에 대한 지원
이런 원칙을 어떻게 잡아서 그것이 소비자가로 이월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
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최고가격제 하면서 한 1700원

대로 공급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한 1800원대 이렇게 됐었고요. 이번에 2차 하면서 1900원대로 저희들이 공급가를, 어차피 이게 물가를, 유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는 주유소에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셔서 1900원대 후반 이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주유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유소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민들 부담도 낮추고 그리고 저희들이 정유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원가, 유류 들어오는 부분하고 출고가 따져서 할 거기 때문에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해서 나중에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기획예산처장관님, 먼저 질의드릴까요?

오늘 첫 데뷔네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박대출 위원**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다 마련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쌈짓돈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는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래서 촘촘히 짜야 되고.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이번 추경은 명백히, 명백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것은 남는 세수를 활용해서 빚내지 않고 쓰는 추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자랑할 일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씹쓰름하더라고요. 돈 없을 때는 빚내서 쓰고 돈 좀 남을 때는 그냥 남는다고 써 버리면 빚 갚을 일, 빚 줄일 일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가채무는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고, 1400조까지 지금 늘어나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까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국가 예산을 쓸 때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 빚을 내서 쓸 때는 쓰고 하더라도 그게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전쟁추경이라고 정부는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명을 했는데 왜 일각이나 국민 또 다른 측면이나 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것을 전쟁 핑계 예산이다라는 표현을 쓰느냐 또 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정부는 인식을 바로하셔야 돼요. 왜냐?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돼 있고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충분히 지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 지적사항은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항목들이 구체성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엉성하게 짜놓은 추경예산안이라는 걸 지적을 한 겁니다. 조목조목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것이 항목별로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그래서 국가채무를 자꾸 폭

탄 돌리기를 하고 폭탄을 키우는 형식으로 가지 않고 촘촘하게 쓰는 노력을 보이려면 이 추경예산마저도 촘촘하게 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민주당 위원님들도 야당 시절에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 같은 항목들. 이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아예 그 취지를 사실상 몰각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구체성 떨어지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진짜 목적예비비라면 지금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점에서는 인정하시지요?

5조 원의 목적예비비를 짰는데 그 항목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보니까. 정유세,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이렇게 되면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네요, 이 항목이. 그러면 목적예비비도 아니고 이름을 바꿔야지요, 다목적예비비로 아무 데나 그냥 목적이라는 이름을 다 쓸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이 항목들도 보면 앞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전쟁과는 무관한 항목들이 막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례들이 앞서도 나와서 제가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목들도 다 이번에 국회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향적인 자세로 해 가지고 예산 심사가, 추경 심사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을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제가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에 대해서 부총리께 질의를 좀 하려는데 시간이 없네요.

한 1분 더 주십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박대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런 긴급재정명령 말씀하실 때 부총리가 관련해서 보고를 하거나 이에 대해서 업무 관련한 논의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없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이런 것은 부총리하고 사전에 의견 개진이 있어서 나와야 되는 발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그 취지가요 긴급재정명령을 할 정도로 시급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박대출 위원 아니, 이 사안이 그렇게 변명하려고 그러면 이 사안 못 고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위원님.

○박대출 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대출 위원 청와대에서 나중에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의지의 표현이라 해서 지금 부총리 변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 변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긴

급재정명령이라는 게 과연 어떤 제도냐,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에 대한 본질적인 질의를 제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2개가 되어야 돼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헌법 조항이에요, 헌법 조항.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

○박대출 위원 대통령이 사전 의견 개진이라는 논의 없이 그냥 불쑥 나온 발언이다 보니까 수습하기 바쁘실 건데 그렇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말이지요 이런 내용은 사전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충분히 경제사령탑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되고 설령 이런 발언이 만일에 나왔을 때는 그 발언의 진의를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대통령도 알고 계세요. 긴급재정명령이라는 것이 긴급한 경우 그다음에 국회의 기능이 작동 안 되는 것 알고 계시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렇게 할 정도로 시급한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잘 대응하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걸……

○박대출 위원 이를테면 이거는 경제 계엄이에요, 경제 계엄이라고. 민주당 논리라면 경제 내란이란 말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대로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대출 위원 그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가지시란 얘기에요. 이렇게 불쑥불쑥 뱉을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지적을 하는데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고……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출 위원 대통령 말을 그냥 수습하려 그러고,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그런 설명이나 변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은 경제 참모들하고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준비된 그런 대응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한 취지는 알겠습니다. 대통령님도 실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재정경제부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장관님, 비상한 시기 아닙니까? 지

금 관료들 다 비상한 각오로 일하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대단히 심각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유유자적한 건 국회 아닌가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어떻게 비상한 위기를 비상한 대책으로 극복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가뜰이나 지난 3년간 내란, 최저 경제성장률을 3년 동안 지내 오고 지금 새로운 전쟁 위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상한 시기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다음 주까지는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김영환 위원 지금 우리 GDP 잠재성장률 2.0이에요. 그런데 다 밑으로 왔잖아요. 윤석열 그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진짜? 1.6, 2.0, 내란으로 1.0…… 안 그러습니까? 지금 수요가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유효수요가? 그리고 전쟁이 터졌어요. 3월 말에 OECD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어떻게 됐어요? 2.1에서 0.4%p 낮춰 놓은 거 아닙니까. 산업연구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유가가 배럴당 150불로 유지되면 0.8%p 내려가요. 이 여파가 얼마인지를 지금 국회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에 긴급하게 지금 추경 코피 흘리면서 제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만 너무나 유유자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관료들은 책임을 지고 시급하게 이 긴급함, 정말 업무에 매진해서 이 위기를 함께 돌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대통령, 총리 그리고 부총리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직접 장관들 관련된 비상회의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대통령님 잘 모셔서 우리 부총리하고 장관님께서 잘 극복해 주셔야 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물가와 관련해서 약간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더라고요, 소비자물가 지표들이. 그런데 이거는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급 사이드 유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이게 전이돼서 오는 건데. 제가 민주당 대표님하고 영덕에 갔는데요 3시간 조업을 같이 나갔습니다, 그물 올리는 작업까지 대표가 직접 하시고. 그런데 3시간 조업할 때 한 드림당 17만 4000원이 든대요. 그런데 수산업 관계자 여러분들 생각은 이게 20만 4000원, 22만 4000원 이렇게 올라갈 거랍니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말씀을 하나면 22만 4000원 이상분, 올라갈 그 부분에 대해서만 70% 보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0만 4000원 이상 올라갈 때 그때 70%를 좀 보전해 주면 좋겠다. 한 10개 짝, 그때 3시간 조업해서 청어 잡았거든요. 그런데 4만 5000원씩이에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현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소비자물가로 그대로 전이가 돼서 오는 겁니다. 이 충격들을 정부가 나서서 이번 추경에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물류 관계자들 그다음에 제조산업

안정 이런 데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짚고 갈 거는 좀 짚고 가야 돼서 제가 하나만 두 장관님들께 좀 질의를 드리는 데 지금 농특세 초과세수를 지역지원계정, 지특회계 이쪽으로 4조 8000억 정도 옮기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을 4조 7000억 감액했어요.

재정경제부장관님, 이거 동의해 주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이 동의가 저한테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주는 게 맞아요, 제가 이 목적사업들 보니까. 제가 한번 불러 드릴까요?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관한 출연·보조·용자 그리고요 지역 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등등등 등……

1분……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주세요.

○김영환 위원 이게 일반적인 지역사업이거든요. 농특세는 뭐니까? 농어촌특별회계는 뭐지요? 이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이 있거든요, 농어촌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세입 초과세수를 끌어다가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지원계정에 넣고 일반회계 넘겨 주는 부분을 잘랐어요. 이 목적에 맞습니까? 이거는 예결위 가서 저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긴급한 위기 시에 긴급한 어떤 정책들은 필요한데 이게 재정의 투명성이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이 과정들이 온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조금 하는 편인데 이 부분들은 예결위 가서 추후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어촌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별로 지출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농특세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식, 코스피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농특세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재원을 활용하는 측면이라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회계도 그렇게 또 이 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공자기금에서 빌려주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자기금에서 빌려주는 걸 줄이고 농특세를 좀 활용함으로 인해서 재원 간의 효율성은 좀 가져오면서 농특세 사업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이 충분하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 그 목적으로 사용하실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역지원계정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역지원계정은 목적이 뚜……

○**김영환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맞는 거예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지만 이쪽에 또 재원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재원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나중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이기는 합시다라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니까 저는 다른 걸 할게요.

증시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난 두 달 동안에 외국인 자금 유출이 한 372억 달러 정도 났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크게 작용을 했고 물론 외국투자기관들의 어떤 리밸런싱 기간이기도 했어요. 이런 게 작용을 한 건데 이걸 아주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연간 유출 규모보다도 더 큰 규모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선을 지켰어요, 붕괴되지 않고, 이렇게 큰 규모로 유출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외부 충격에도 일정 수준의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적 체력을 갖추었다 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방 안정성을 확인했다 이거에 대해서 부총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 반도체가 워낙 경기가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반영된다고 봅니다.

○**김태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할 건데 김용범 실장께서도 ‘극단적 상황에서 하단을 확인한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펀더멘털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수는 결국 실물경제의 실적으로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이런 증시 복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주식시장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단순히 시장 방어를 넘어서서 금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핵심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와 사회교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최근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하나 생겼어요. 전환점 하나가 생겼는데 WGBI 편입 아니겠습니까? 1일부터 단계적으로 편입이 되는 건데 외국계 금융기관들 또 국고채 전문딜러들이 이 효과를 우리 금융시장에, 우리 채권시장에 한 500억에서 600억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환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구조적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WGBI 편입이 우리 채권시장의 안정

기반이 마련됐고 또 외화 유입의 어떤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입 또는 유출에 흔들리지 않는 구조적인 시장 안정 프레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MSCI 편입 아니겠어요?

지금 제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이 목표인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 위원 그래서 지금 24시간 개장 이거 7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위원 이게 MSCI 편입을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고 시장 접근성, 투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시장이 들어오기 쉽고 머물고 싶은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MSCI 편입 이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신흥국 지수 시장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시적 제도개선과 또 다르게 미시적 관리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삼천당제약 건 있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9조 원이 증발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이건 시장에서 기업의 기술적 실체나 공시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걸 보여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더구나 코스닥의 대장주 이렇게 평가되던 건데. 그러니까 정보 부족 또는 루머 이런 것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단순한 개별 종목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공시의 신뢰성 또 시장 감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법 내서 어떻게든 우리 코스닥 시장 혁신하자 이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채권시장은 WGBI라고 해서요 이게 세계국채지수에, 선진국채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30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3일만에 한 30억 불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국채시장의 국채 금리를 낮추고,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그러면 기업이 자금 조달하는데 이자비용이 줄어들고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데다가 외환시장에도 저희들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식시장 선진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거나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MSCI라고 해서, 이거는 주식시장의 세계 선진지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을 하고 또 관련 투자자들 설명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팀을 만들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지적해 주신 미시적 측면에 있어서 결국은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화되려면 주식시장의 투명성, 불공정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없앨 건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방·상방 리스크가 줄어들어 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보다는 또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위원님이 주신 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채권의 선진화에 있어서 주식시장 선진화 내년에 간다 하는 그런 각오로 최

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질문도 안 했는데 답변을 다 하셨어요.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깐 다른 것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면서 에너지 산업의 구조 전환 이게 정말 시급하다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맞습니다.

○**김태년 위원**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동에서 나는 석유나 가스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게 되면 이런 사태에 엄청나게 무기력하다라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전략산업에 재생에너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포함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전략기술에 포함시켜야 된다. 에너지안보가 곧 국가안보이기 때문에 전략기술이 맞아요.

그다음에 생산세액공제, 우리가 배터리산업이나 이런 것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몇 개 산업은 지금 큰일 났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국내 산업들이 기반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는데 용역 내서 검토한다고 그러더니 아직도 용역 중이에요. 무슨 용역을 이렇게 길게 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금년에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태년 위원** 아니, 상반기 세법에 포함시켜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기국회 때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주신……

○**김태년 위원** 속도가 좀 느려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저희들……

○**김태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생산세액공제 할 때…… 미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력 생산에 따른 세액공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할 때 이것도 세액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기후에너지부장관은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위원님 주신 생산촉진세제라는 것은요 시장에 그냥 내버려뒀을 때, 꼭 생산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 내버려두면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는데 이것 없으면 큰일 난다 하는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김태년 위원** 아니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야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컨대 이걸 너무 넓히다 보면요 확장 가능성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김태년 위원** 한국판 IRA법.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주신 그런 측면 또 저희들 세수도 고민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잘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도 해서 이번에는 생산촉진세제를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 추가로 제안할 게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위원장대리 박수영**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임 원내대표라서 더블로 쓰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추경이 다행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시장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부총리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조금 전에 좀 빠지는 걸 보고는 왔는데……

○**조인철 위원** 지금 5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환율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환율도 조금 올라가는 걸 보고 왔습니다.

○**조인철 위원** 1515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인철 위원** OECD만 보더라도 2.1에서 지금 1.7까지 하향시켰고 이런 상태로 보면 우리 경기가 약간 회복될 것 같더니 지금 충격파를 또 먹고 있는 거지요. 이럴 경우에 이보다 더, 추경 이외에 더 효과적인 정책이 있나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정책수단?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추경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피해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게 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경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특히 이번 추경의 특징은 초과세입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조인철 위원** 초과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증세 효과로 오히려 경기 하방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는 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로 보면? 이럴 때 세입을 편성해서 다시 민간으로 돌려주는 것은 경기를 자연스럽게 계속 위로 치고 올라가게 해 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래서 추경 함으로 인해서 한 0.2%p 정도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인철 위원**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때 같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할 수 있나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당장 피해를 받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유가 올라 가지고 조업을 나가면 나갈수록 손해가 되는 이런 분들은 언제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은 하루라도 시급하게 빨리해서 그분들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조인철 위원** 지방선거까지는 기다릴 여유는 없고 지금 당장 진행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추진해야 되는, 현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인정하시는 거지

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저희들은 정치적인 그런 고려보다는 민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철 위원 특히 지금 피해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매표행위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소득재분배 효과나 이런 걸 따져 보면 피해지원금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

지금 초과세입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주로 법인세라든지 증권 관련 거래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조인철 위원 주로 법인세에서 많이 걷혀서, 즉 대기업에서 많이 걷혀서 그 돈을 하위 소득 70% 이하 취약계층에게, 물론 중산층도 좀 들어 있습니다마는 취약계층한테 돌려줘서 그분들이 소비진작에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 소상공인까지 같이 살아나는 이중의 효과가 있고 총수요, 유효수요를 늘려 줘서 결국 0.2%의 경기진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간사, 임이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인철 위원 그래서 결국 이걸 매표행위가 아니고 가장 시기적절한 시점에서 경기의 하방 압력을 낮춰 주는 수단이다라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산처장관님, 기획처장관님이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조인철 위원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K-패스 환급률 인상 이외에 이번 추경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예산 들어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마도 지금은 6대 도시철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인철 위원 아니, 이번 기회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충격적인 것을 좀 하자, 그때 제가 특정 일을 정하거나 해서 전 국민 대중교통 무료로 하는 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것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이라도 무료화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기억 안 나시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 부분은 조 위원님뿐만 아니라 또 타당의 대표께서도 한시적인 무료 이용 이런 것도 제안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함께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수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실 수 있는 분들, 다양한 다른 방식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공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갈아타기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이용했던 것보다 좀 더 저렴한 데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보다는 그렇게 이전만 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겠다.

세 번째는 유럽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실제 그 평가 결과를 봤더니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기본형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환급해 주는 그런 걸로 설계를 했다.

그러나 아까 앞서 진성준 위원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기본형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향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위원 예산처장관님, 금방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러시지요.

○차규근 위원 존경하는 조인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표명하신 대중교통 무료 정책 관련한 것인데요 장관님께서 금방 상세하게 답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급지원 정책이 포함은 돼 있습니다. 자가용 이용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에게 환급률 10%p 올리는 것이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10%. 지금 현재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대 30%p까지 상향해 주는 것입니다.

○차규근 위원 일반 국민의 경우는 10%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현재 20%에서 30%로 올린 것입니다.

○차규근 위원 장관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국혁신당 대표께서 최근에 추경 편성 소식에 출퇴근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지원사업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저도 봤습니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차규근 위원 예산처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심각할 때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로 운행한 바가 있는데 그때 하루 투입된 예산이 50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위기상황에서 재정적으로 감당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한시적 무료지원 사업과 더불어 한국판 9유로 티켓, 좀 전에 유럽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독일의 9유로 티켓, 49유로 티켓—현재는 63유로라고 합니다—도입 효과는 분명하다고 보고서에 나

와 있습니다. 9유로 티켓 도입 이후에 물가상승률 0.7% 감소했고 소득지원 효과도 확인되었다. 독일 국민의 12%가 9유로 티켓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 9유로 티켓 구매자 중 30%가량이 기존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다가 이 티켓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중교통 이용자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유로 티켓 이후에는 시민들의 만족이 높아져서 비슷한 기조의 정책 연장을 결정해서 49유로 티켓, 진전해서 63유로 티켓까지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좀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유럽 사례의 경우에 평가가, 효과가 좀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독일 사례의 경우는 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할 때 그 효과가 좀 분명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함께 다 감안을 하신 것인지, 검토를 하신 것인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먼저 독일 9유로 티켓 관련해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바로 내부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얼마 들어갔냐면요—독일 IFO 연구소의 결과입니다—한화로 한 4.3조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량 통행량은 한 4~5%만 감소했고 오히려 열차 지연이 30% 이상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좀 커졌다고 하는 결과를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이것을 6개월 기준으로 해 봤을 때 1.3조 플러스알파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가 시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다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차규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향후에 논의해 보도록 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차규근 위원 재경부장관님, 제가 작년 8월 달에 장관님께 석유화학 구조조정 관련해서 세 가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수 노동자들의 공동대책위원회 만나서 구조조정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들으시고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었고요. 두 번째가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증액해서 산업 구조조정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세입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켜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첫 번째 장관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만나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파악해 보니까 최근에 통상 압력, 여러 가지의 상황 때문에 만나 보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때 산업부장관이 가도록 해서 내려가서 직접 만나고……

○차규근 위원 아, 산업부장관님. 재정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관님께서도 한번, 내려가시기에 시간이 나지 않으시면 그분들을 좀 올라오게 해서 가지고 만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짬을 내셔서 한번 만나 주시는 게 어떠실까 싶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차규근 위원 나머지 재원 마련과 세입 기반 확충까지 노력해 모범사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중동사태 관련해서 나프타 쇼크나 석유화학 구조개편,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상당히 위기인데 또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구조조정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산 1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사업재편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특히 좀 관심이 있는 게 단순한 사업을 재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재편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3분 보충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차규근 위원** 예, 안 하고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1분 드리세요.

○**차규근 위원** 장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석유화학 업계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또 중동과 중국의 설립이,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공급과잉이 완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할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석유화학의 구조조정, 그 원칙 그걸 확실히 견지해 나가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공직자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잘 살려 가지고, 어차피 물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가동률은 누구나 다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품질로 전환하는 노력을 업계들하고 상의도 해 가지고 구조조정 추진이 되도록…… 지금 재원도 마련해서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세입여건도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그런 거둬나는 산업으로 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이번 추경이 전쟁 추경입니까, 아니면 전쟁 핑계 추경입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전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유상범 위원** 전쟁 상황인데 그 전쟁이 우리 전쟁은 아니지만 중동에서 난 전쟁으로 인한 추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공급 및 급등에 대응한 추경 이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가 문제가 가장……

○**유상범 위원** 그게 원칙이 돼야지요. 전쟁 추경이라고 명명하고 그게 원칙인데 그것이 예외처럼 돼 버리면 그건 전쟁 핑계 추경이고 선심 매표 추경이지요.

그런데 전쟁으로 충격이 오면 가장 중요한 게 유가가 급등하면 생산비가 상승해요. 그렇지요? 해운물류가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고 원자재 수급 불안이 오게 되면 결국은 제조업이 위축되고 또 공급망이 교란되면서 산업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결국은 이게 서플라이 쇼크 아닙니까? 공급 측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은가요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부분 그게 중심이 돼야 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이 중심이 돼야 되고 전략물자 확보하는 부분, 물류비 지원 뭐 이런 식으로 전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의 많은 문제 이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26조 원 중에서 지방재정 및 현금성 지원이 14.5조 원가량 됩니다. 규모가 이 정도 맞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지방으로 가는 9.7조는 이미 법률에 의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갔습시다만 실질적으로 14조, 전체 55%가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즉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상황에서 석유의 부족인데 갑자기 국내 점유율이 95%인 중국산 태양광 셀을 추경 편성해서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이 2000억, 이게 적정합니까? 지금 태양광이랑 전쟁 추경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조적 개혁도 함께 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 세계가, 특히 유럽에서 탈원전을 한 것에 의한 큰 반성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가동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지금 급한 건 원전 가동률을 높이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건 지난번에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중기부에서 타 사업 예산을 불법 전용해서 본예산에 없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해서 5000명 선발을 추진하고는 추경에 이걸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800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이게 무슨 코미디 같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창업을 모두가 한다. 그게 1550억. 이게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은 경기가 위축되고 창업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상범 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창업이 결국은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자리……

○**유상범 위원** 아니지요. 장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전쟁 핑계 추경이 아니라 전쟁 추경이고 전쟁으로 인한 것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지요. 그리고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이것은 그냥 일상적인, 우리가 통상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지표가 매우 안 좋고 특히 쉬었음 청년이 49만 명까지 최근 몇 개월 동안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전

쟁으로 인한 여파가 더 커지고 있는 것이지요.

○**유상범 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얼마나 세게 반영했습니까. 거기다 또 추경예산에 1500억을 꼭 더 없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채납관리단을 이제 국세외 채납관리단으로 하겠다면서 2134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 법도 통과 안 되고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알다시피 국세외 채납관리단은 법제처에서 검토를 거쳐서 관련된 규정·지침에 의해서 이미 공문이 시달돼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나 관련 규정은 현재 재경위에서 법률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법률은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논의 중이고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편성한다 이것 사실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니, 개별법상 위탁징수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 해당 기관 간에 행정협조 차원에서 징수 지원 활동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법제처의 검토를 받아서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상범 위원** 그다음에 약 19만 명한테 월 15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런 외부적인 변수가 어떤 데 더 우선적으로 타격을 주느냐,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유상범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이것 시범사업 실시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시범사업 실시해서 3개월 해서 그 성과나 문제점 그다음에 역효과가 전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19만 명 추가로 준다, 이것 매표 추경이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범사업 실시해 가지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표를 얻는 게 중요하지만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청년 2500명 협동조합에서 5개월 일경험 시키겠다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가장 단기간에 일자리 늘리는 사업. 이것 사실은 말만 사업이지 그 청년들이 새로운 자리에 계속 올라가서 새로운 직장을 갖는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들이 한 스무 가지가 있어요. 이게 추경으로 갈 사업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쟁이라고 얘기하시면 국민들한테 전쟁이라는 공포와 전쟁으로 위기감을 각인시키고 나서…… 사실은 선거를 앞둔 매표 추경이지요. 이걸 어떻게 전쟁 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상범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부분은 일경험 관련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장하는 것도 있고요. 이와 함께 말씀하신 연장, 확장 차원에서 이런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한 경험까지 저희가 쌓도록 했습니다.

청년들이 일 쉬었음으로 가는 그 근본적 배경 중의 하나가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경험 프로그램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를 하고 또 일경험·직업훈련을 통해서 대기업과 연계한 그런 뉴딜 아카데미를 이번에 개설하겠다는 게 기본취지로 담겨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회연대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도 굳이 이런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가치지향적 일자리의 경험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구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좋은 취지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애기예요. 전쟁 추경이라고 하시면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러니까 전쟁과 함께 결국은 고용……

○유상범 위원 아니,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제대로 지원을 안 하시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추경을 한다는 게 맞냐 이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하여튼 일자리 문제, 청년들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우 심각성을 느끼고 관련된 사업 보장을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일경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추경을 지금 얼마나 세워 뒀습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것을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얼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9000억의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추경에 9000억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한 10만여 명 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임이자 10만여 명?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그것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일경험 프로그램 관련돼서 예산을 올려 뒀더니 민주당에서 3000억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래서 기존 그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경험을, 인턴십을 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데서 한번 경험이 그다음 자기 취업에 매우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위원장 임이자 글썄,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부 때 그걸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3000억 원을 대폭 삭감해 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전

쟁 추경에 이게 다시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하기는 필요하지. 일반 본예산 때 담았으면 되는 것들을 추경……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고용지표가 더 악화된 게 계속 매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중동 상황 이후에 더 급격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단지 고용지표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닙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의 문제와 연계되는 것이고 전체 기업, 경제성장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위원장 임이자 일자리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과제인 건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는 게 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난 환노위 때 내가 이걸 겪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형 위원 먼저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쟁 추경이나 아니냐 논쟁이 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할 당시에—그때 2022년이었습니다—그 당시에 에너지가격이 올랐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2022년도에 동일한 물량을 수입할 때 가격이 거의 한 2배 됐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실제 그때 표현들이 언론에서 보는 게 에너지위기, 경제위기, 무역적자 이런 단어들이 동시에 회자됐었고요. 또 그 당시에 한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전의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어떻게 하나? 그때 201조, 2023년인가 24년인가 그 때 논쟁이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위기에 관한 문제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서로의 상황 인식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지요, 어제. IEA하고 IMF, 세계은행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해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세계 에너지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연관돼 있는 이 충격을 다 받고 있다. 그리고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접적으로 수입을 주로 하는 한국이나 일본은 충격을 더 크게 받고 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그런데 그건 기존에 예상할 수 없는 거였고.

그다음에 IEA에서 또 최근에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이번의 이란사태, 중동사태는 1979년도 2차 석유파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중에서 특히 한국은 영향이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오기형 위원 그러면 이 상황이 거의 비상경제 상황인데, 이걸 지금 전쟁이란 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경제 충격이 오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상황 인식을 보다 적나라하게 국민들과 공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주재로 해서 비상경제점검회의 하고 있고요,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비상경제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제장관들하고 수시로 공급망이라든지 생활물가·민생물가 점검반을 만들어서 품목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국제 LNG 가격 보니까 그 당시에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할 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것에 대한 LNG를 봉쇄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국제시장의 가격이 그 2배 이상 폭등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했는데 그 당시에요 우리가 한 1년 이상 고생을 했었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중동사태 이후에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 거냐 해서 시나리오를 산업연구원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했었던 건데 단기 대응은 한 달 정도, 그런데 이미 단기 대응은……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났습니다.

○오기형 위원 2월 28일부터 해서 한 달 지나 버렸습니다, 이미 단기 대응은 시나리오가 다 없어진 거고.

두 번째 중기 대응,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그런데 지금 중기 대응이 실제 이대로 될 거냐? 오늘 아침에,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것 보면 이미 중기 대응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장기 대응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장기 대응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이나 수출이나 전반적인 경제에 구조적 충격을 주게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구조적 충격이 단어만 구조적 충격이지 실제 어떻게 우리 경제에 속속들이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석유로 파생되는 연관 제조가 한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이 다 지금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생활쓰레기봉투까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페인트 가격을 점검해야 돼요. 곳곳에 지금 주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 다른 나라에서 석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 LNG를 최대한 확보하는 이런 노력까지 기울이면서 또 품목별로 공급의 애로라든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안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대응하고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간이 더 진행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계속 매일 점검하고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오기형 위원 국제유가가 200달러까지 갑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건 진짜 제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기형 위원 그러면 150달러 이상 넘어갈 가능성이 큼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

○오기형 위원 그런 질문들을 저희들이 지금 수시로 받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장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면 올해 전 산업 생산원가가 9.4% 올라갑니다. 9.4% 올라가면 이것에 기초하게 되면 마진이 9.4%가 안 되는 많은 기업들은 도산해야 됩니다,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중동 TF라고 해서 따로 TF를 만들어서 특위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러 기업들, 중소기업 또는 상공회의소, KOTRA 다양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절절한 호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타격이 오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접어야 되냐, 구조조정해야 되냐……

그다음에 제가 어제 여천산업단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인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가하게 이야기할 때가 아니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분들 이야기가 생각보다 빨리 추경을 제안해서 그것은 좀 다행이다,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실제 지금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 공급망이나 체인별로 나올 수 있는 피해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그쪽에 뭔가는 도움이 되게 하는 그리고 특정 분야가 독박 쓰지 않게 하는 것 지금 우리 경제주체는 모두가 다 그 부담을 안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정부가 부담할 것, 기업이 할 것, 소비자가 할 것 이것을 서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으로 지금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번 추경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을 진정한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 부득이하다.

그리고 특히 시나리오별로 보면 있는 그대로 설명을 더 국민들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입을 딱 닫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는가라고 저는 위기의식이 좀 있거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정부는 지금 입 다물고 있지는 않고요. 산업부 같은 품목별로 담당자를 다 정해 가지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 부처별로 자기 소관 물가 그리고 공급망 다 체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종합해서 빨간불·파란불·노란불 이렇게 해 가지고 신호등처럼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은 공급 애로를 해결해 주고 또 어떤 부분은 물가가 올라가,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저희들이 재정 보조를 해 준다든지 또는 기업이 그 애로를 해결할 수 있게 자금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부처가 매여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이게 격상돼 있는데 격상된 의미가 국민들에게 다 공감되고 있지는 않다, 설명 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부총리님, 이재명 정부 이번 추경안은 그야말로 무모하게도 보이고 무계획처럼도 보이고 무책임하다는 3무 추경처럼 정의가 됩니다.

부총리님, 지금 26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돈인지 감은 가지고 계시지요? 얼마나 큰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지만 또 피해받은 입장에서는 이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인선 위원 그렇게 양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인가 하면 부처로 보면 어쨌든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1년 예산을 합친 거랑 맞먹는 수준이고 우리 대구시 같으면 230만 명 시민이 2년 반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년에 110조 정도에 달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돈을 풀면 어쨌든 갓 태어난 아기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5000만 명 모두에게 다 준다고 환산하면 52만 원 정도의 새로운 빚 청구서가 되는데. 물론 이 26조 안에는 그런 비용도 있고 꼭 써야 되는 비용도, 비용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지금 부처에서는 빚 갚는 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부터 이것을 써서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석유류나 경유 가격이 올라 가지고요. 아까 어민들 그다음에 농민들 농사 짓는 데도요 석유류나 등유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시급한 지원정책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초기에 빨리 진화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재정위원으로서의 걱정은 우리가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있고 원화가치가, 주요국 43개 나라 중에서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통화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다가 생각을 해도 이러다 빚더미에 올라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채무불이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환율이 1400원 돌파할 때 1400원 돌파하면 고물가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전반에 위기가 현실화가 되었다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원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그러면 이 고물가 경제위기가 현실화가 되었다고 지금 보시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이것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되는 거고 2월 26일 날 제 기억으로는 환율도 한 1430원대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인선 위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갔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이게 중동 충격 때문에 온 요인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다, 70%에 달하는 중동 원유 수입이 일원화·의존도가 높아서 그렇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정부 측에서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은 지정학적인 불안 이외에도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구조적 원화 약세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염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 기획예산처장관님 첫 질의를 나오셨는데 저랑 예결소위에서 늘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했던, 여야가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여튼 전 국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준다, 소비쿠폰을 준다……

이번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결국은 추경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선거철이 가까이 왔을 때 하는 택갈이, 돈 뿌리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에 대해서는 반드시 염려에 대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냐, 한 6월 정도, 2분기 정도까지 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급박한가 하는 그런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처에다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만 1월 달에는 8.3%의 예산집행률만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률을 여기에 물으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30%, 32% 집행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재경위원도 모르는 깜깜이처럼 보이면, 순차적으로 살림을 살다가 부족한 시점에 이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추경에 대해서 시점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선거용 추경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우리 재경위원뿐만 아니고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잘 설명하셔야 되고요.

국세청장이나 조달청장님은 예결소위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오대수’라 그래 가지고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추경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2022년에?

○위원장 임이자 1분 더 줘요.

○이인선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지만 2022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추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오대수 추경이다, 그래서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추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추경이 대충하는 추경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지금 가셨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이인선 위원 거기서 다잡아서 정말…… 우리가 지금 5조를 더 얹는다, 26조를 하더라도 우리 재경위원회나 이런 데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삭감했을 때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또 다음에 필요한 세수가 왔을 때 추경을 가고 이래야 되지 한꺼번에 이것을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이인선 위원님 말씀을 저도 당연히 유념하고 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 더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과정에서 여러 번의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선 위원 예.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세계적 평가 했을 때 대한민국의 당시 추경에 대한 재정 대응은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동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큰데 마치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처럼 호미로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가래로 막아야 될 때가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값은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저는 적재적소, 적시에 제대로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적극 투자해서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성장의 기반과 흐름을 최대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그 이후에 경제·민생의 흐름을 잘 지켜 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세입을 그만큼 더 확충할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딱 이번 사례가 저는 진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원이라고 하는 국채 상환에 대해서 여력도 만들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선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시설화훼농가, 운송업자, 영세 자영업자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4인 가족 970만 원의, 하위 70%에 해당하는 그 집에다가 10만 원, 50만 원 줬을 때 그게 과연…… 전체 추경에 영향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아니……

○위원장 임이자 안 하십니까?

예결위 들어가십니까?

○정태호 위원 아니, 소위에서 어차피……

○위원장 임이자 소위에서 어차피 하시니까.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일반적으로 돈이 풀려서 M2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는 올라갑니다, 내려갑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요 지금……

○박수영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물었으니까 묻는 것에 답변하시면 돼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일반적으로 M2가 늘어나면 환율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환율은 절하가 됩니다.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평가절하돼서 환율이 올라가겠지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박수영 위원 지금 우리 경제의 제일 큰 문제가 물가와 환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이 시기에 26조 2000억이나 되는 추경을 하는 게 과연 물가와 환율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 추경을 하는 것은 물가·환율 그런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에 따른 피해를 받는 계층들에 대한 절세……

○**박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예상했던 답변이시고요.

물가와 환율에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는 물가와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칠 마이너스 영향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이것 전쟁 추경이라고 정의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전시적 상황이……

○**박수영 위원** 그런데 전쟁 3월 1일부터 이렇게 된, 2월 말일부터인데 그 전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소위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끼워 넣기로 들어오면 이것은 추경에 정당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그 전의 사업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를 들어서 기존 사업 중에서도 추가적 소요가 발생한 것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다면 그것은 더 해야 될 거고요.

○**박수영 위원** 그리고 인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앞으로 예산은 성과가 불분명한 것은 안 하겠다, 편성하지 않겠다, 성과를 분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평가작업을 앞으로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장님, 추경에 설명하신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전쟁이라는 단어도 중동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 체납관리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박수영 위원** 제가 질문드릴게요.

2133 좀 꺼내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영 위원** 그렇지, 이번 추경에서 제일 핫한 숫자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시로 국세도 지금 체납관리단 하는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까지 하는데 거기 지금 추가로 추경에 요청하신 돈이 무려 2133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수영 위원**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이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저 밑에 권익위의 2배쯤 되고요 동포청의 2배쯤 되고 감사원의 2배쯤 되고요. 공정위보다 많고 새만금보다 많고 조달청·소방청·행복정보다는 적지만 한 기관의 예산에 버금가는 정도 예산을 지금 추경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있으신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내서 얼마를 거두어들일 것이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답도

안 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그동안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2500명, 국세외 체납관리단을 무려 7000명 해서 9500명을 편성하게 되고 그게 2133억 원 증액 요청한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제공무원이거든. 이것도 공무원은 공무원입니다, 기간제. 그런데 9000명이나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넣어서 늘린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 행안부 직제 협의하면서 공무원 750명 요구하셨지요? 이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공무원이 필요한데 그게 기존 공무원으로 안 되니까 또 750명이나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2733억 원을 체납 관리하는 데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지난번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00명 정도로 시범실시해 보고 성과가 나오면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2700억이나 되는 돈, 9000명, 1만 명…… 공무원까지 합하면 1만 명 넘지요? 이런 사람들 뽑는 것을 갑자기 들이대는 게 지금 추경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한 것들을 왜 안 지키고 막 이렇게 하느냐.

그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월별 체납정리 실적을 한번 보내 봐요.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9월 달에 시범실시를 했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보세요. 시범실시한 때가 현금정리 금액이 제일 낮아요. 정리보류는 또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징수율은 또 제일 꼴찌예요. 이렇게 시범운영을 해 놓고 돈을 저렇게 많이 달라고 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과가 분명히 나올 때 예산처 장관님이 돈 준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낸 자료는 경기도 자료인데 경기도 자료도 옛날에 잘했다 이런 모양인데 보시면 체납관리단을 5565명 운용했고 예산 830억을 썼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징수율 한번 보시지요. 2020년 징수율이 전체 꼴찌 가깝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징수액은 늘었습니까? 다른 해와 비슷하거나 적거나 이런 상황 아닙니까. 즉 성과가 분명하지도 않은 사업에다가 돈을 2133억에다 500억 보태고 2600, 2700 이 정도 돈, 9000명, 1만 명 뽑는 걸로 한다? 공무원 출신인 제가 보기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성과 있는 보고서 같은 게 있느냐 했더니 콜롬비아 국세청이 했는데 돈을 벌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콜롬비아 국세청 자료는 2014년이고 콜롬비아가 우리하고 똑같은 나라도 아니고 이 대상은 자진신고한 사람들을 쟁겨서 전화를 했더니 돈을 더 내더라 이겁니다. 도대체 G10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국세청 자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저는 예산 통과시킬 수…… 이렇게 후다닥 통과시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인원도 1만 명이나 늘리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영 위원 짧게 하시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일단 이게 전쟁 추경에 합당하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 보면, 이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하면 이런 취약계층들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박수영 위원 그러니까 체납이 아니고 일자리 정책입니까? 노동부장관 되셨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체납도 정리를 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지시로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만 국세 체납이 왜 이렇게 많느냐 국감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정리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다 찼기 때문에.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장님, 저도 답변 기회 주시면……

○위원장 임이자 하세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박수영 위원님께서 추경으로 인한 환율, 물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율은 지금 사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IMF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물가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물가가 오른다고 이렇게 보시지만 한국 경제 상황이 GDP 갭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서 이 부분도 수요 압력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 내용이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물가 측면보다는 생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은도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책의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국세청장님, 국세청장님께서 방금 박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렇게 답변하게 되면 그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수영 간사님이 지적하신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자리 창출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5565명을 투입해서 세금을 803억 원 더 받아들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는 아마 투입되는 예산 대비 한 3배 이상의……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보건 복지부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차라리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술하게 체납액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세수입 체납액 관련돼 가지고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을 때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지금 연구 중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셨냐면요 박민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지금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효과가 어떻게 날지도 아직 정확하지도 않고 연구 중이고 법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톡 갖고 왔다, 그것도 전쟁 예산이라고 지칭하면서? 이걸 안 맞다,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논리를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박홍근 장관님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장관이 되어서 그러신가. 아마 박홍근 장관님께서서는 여당도 해 보셨고 야당도 해 보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해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떤 때는, 여당은 당연히 물가나 가격 안정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생안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은 야당대로 세수가 국민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견제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 이게 공격과 방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기 때문에 야당 했을 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지금 현 야당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잘 경청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지금 고물가·고환율 여기다 고유가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국민들 생활이, 민생이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장관님께서도 1단계·2단계·3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겠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다가 추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사용 억제라든가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나프타 관련돼 가지고 수출 억제 정책도 펴고 있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최고가격제라든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쓰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르는 추경이 수반되다 보니까 추경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서 추경을 한다 할지라도 전문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예비비 관련해서. 정일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비비를 4조에서 5조 더 편성해서 9조로 가는데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용처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그러면 최고가격제 지속 예상 기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반영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까 답변 기회를 얻지 못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시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도 저희가 그냥 뭉뚱그려서 5조다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예상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당연히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필요한 만큼 저희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적어도 예상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아까도 제가 이미, 예를 들어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두 분기, 즉 6개월을 예상했다. 그것은 단순히 예산실의 내부 검토가 아니라 산업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여러 가지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변동에 따른 시나리오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6개월 정도를 예상했다라고 하시면 지금 3월부터 9월 정도 보시는 겁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로 정산이 아닙니다. 저희가 2주 단위로 최고가격제를 변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기 단위로 저희가 정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정산은 그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피해 시점을 어디서부터 산정해서 어느……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그것은 이미 최고가격제가 실시된……

○위원장 임이자 3월 달부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지금 한 3주 됐고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예상보다 아주 장기화됐을 때 그 부분에 필요한 소요는 당연히 올해 예산이 아닌 내년 예산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시점이 맞아떨어집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들을 보니까 산업부의 예산에 나프타 수급안정 지원금이 4695억 원 산정돼 있는데 이게 중복 아니냐 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나프타는 알다시피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과 연관된 부분에 필요로 하는 제품, 물품 아닙니까? 따라서 현재 우리가……

○위원장 임이자 산업부에서 지금 한 4700억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차액 보전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시장 섭외를 통해 가지고 민간기업들이나 정부가 나서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보전, 애초에 저희가 산

업부.....

○위원장 임이자 이게 중복이 아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그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산업부에서는 오히려 더 추가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나중에 좀 더..... 박수영 간사님, 소위 들어가시나요? 안 들어가십니까?

○박수영 위원 예결소위는 아닙니다.

○위원장 임이자 예결소위 아닙니까?

○박수영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정태호 간사님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정태호 위원 추가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3분.

○위원장 임이자 예,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5분.

○위원장 임이자 하십시오, 5분.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마저 하고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맨 마지막에 하셔야지요.

○위원장 임이자 아니, 제가 이제 진짜 하려고요.

아까 어업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이 직접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영환 위원님이 어업 관련돼 가지고 영덕 가서 배를 타 보시고 한 드림의 기름값이 17만 4000에서 20만 원만 되면 해 달라, 그런데 22만 올라가야 70% 보전해 준다.

그런데 저는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예산처장관님,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정부가 지금 얼마 정도 보조해 주고 있나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현재 지원단가가 한 8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8만 원이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지금 현재 2026년도에 필요한 물량은 65만t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30%, 지자체 20%, 농협이 30% 그다음에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100%가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대로 요소값이 상당히 뛰었습니다. 원자재 동향을 보게 되면 요소가 96.9%고 암모니아가 한 25.5%인데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좀 더 높아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가격 변동을 보게 되면 요소가 94.5%고 암모니아가 55.4%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엄청

뛰었습니다. 작년 1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올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요소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농민들에게는 유류세—면세유지요—그것뿐만 아니고 사료비도 지원하는데 여기에 무기질비료도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 장관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프타라든가 최고가격제 같은 경우 기간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을 때는 2분기로 보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런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기질비료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했더니 1분기만 반영을 했습니다. 65만t이면 2분기면 30만t 정도를 반영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추정인상률을 보게 되면 25.7%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번 예산에는 11.7%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42억 원을 증액했고 농림부는 162억 9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농협은 더 나아가서 20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히려 4분의 1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지요. 그게 기간도 그렇고 또 가격 인상, 원자재 인상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42억 원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아까 최고가격제나 나프타 관련해서는 2분기를 반영하시면서 농업 쪽에는 1분기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말씀처럼 현재 우선 3·4분기에 16만t을……

○위원장 임이자 14만t 지금 반영돼 있고.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16만t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만 원부터 10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말씀처럼 요구하는 것은 가격 상승 예상분의 80%를 지원해 달라 이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기, 1분기에 3개월 치가 반영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는 이 부분은 향후에 더 예비비에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2억 정도 편성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가보조금과 같은 다른 지원책들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분 일부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통은 50%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0% 지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그래서 전액 지원은 다른 데와의 사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가가 이미 여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이번에 전체 최고가격제를 모든 국민이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요금도 지금 하고 있고 면세유도 지금 다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했다.

그리고 무기질비료와 관련해서는 소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서의 문제 제기도 한편에서는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 감안한 겁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한지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하여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만큼 요소값이 오름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전이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걸 80%를 다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기간 산정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는 1분기고 어디는 2분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향후에 예결위에서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지를 열어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가지고 증액을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게 농사의 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무기질비료가 좀 더 많이 필요한 시기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이상입니다.

정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 국세청장님, 최근에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들 모집을 했었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습니다.

○정태호 위원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저희가 500명 모집을 했는데 8377명이 응시해서 16.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런 거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체납관리단 모집하는 데 13 대 1?

○국세청장 임광현 16 대 1이 넘었습니다.

○정태호 위원 16 대 1이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정태호 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가 절실한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정태호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정책이 도입이 된다는데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복합적인 경제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또 고용 문제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체납관리단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몇 명을 모집합니까, 국세하고 국세의 다 합하면?

○국세청장 임광현 9500명……

○정태호 위원 9500명이잖아요. 9500명을 통해서 그동안 국회에서 그렇게 지적받았던 체납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도저히 갚지 못하는, 세금을 갚지 못하거나 또는 국세외를 갚지 못하는 분들은 경제활동을 복귀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것은 무형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태호 위원 또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국가로서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하나의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국세 체납 또는 국세외의 부분에 대한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당연히 어려운 경제 시점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의미 있는 일들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일단 소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로 독려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3주 정도 시범운영을 했는데 한 3만 1000명이 넘는 체납자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한 10% 이상이 납부를 하거나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좀 있습니다.

○정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체납자들 체납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거기다가 또 고용 문제까지 공공형 일자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를 잘 준비를 해서 가지고 소위원회 때 저희 위원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임광현 국세청장님은 진짜 논리 개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천하람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천하람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그러면 천하람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임광현 국세청장님, 아까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좀 해 보지요, 인화식 세무사 이종사촌 이야기.

제가 인사청문회 당시 속기록을 좀 봤더니 존경하는 박성훈 위원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세무법인 선택 최대 주주인 인 모 씨하고 후보자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무법인은 제가 퇴직을 하고 그래서 저하

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명확하게 인 모 씨하고 후보자님과의 관계를 물어보셨는데 끝이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끝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박성훈 위원님이 ‘최대 주주인 인 모 씨하고는 어떠한 인연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세무법인과는 저는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사실입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면 저희 청문위원이 당시에 물어봤던 게 세무법인과 지금 관련이 있다, 없다는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청장님과 인 모 씨, 그러니까 인화식 세무사와 관계의 문제였을까요?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이것은 제 명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천하람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국세청장 임광현 아니, 들어 보십시오.

○천하람 위원 아니, 제가 드린……

○국세청장 임광현 제가 한 1년 반 정도 민간에 적을 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같이 일을 했었던 구성원들은 그 전에도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해 왔던 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국회에 오기 위해서 퇴직을 한 이후에도 일을 잘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하람 위원 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의 인연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국세청장으로 와서 어떤 규정이 위반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소지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설명도 드리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렇게 땀땀하신데 왜 인사청문회 때는 답변 안 하셨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아니,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세무법인과 어떤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느냐 그 취지지……

○천하람 위원 그러면 국세청 조직원들한테 세무법인 선택과 내가……

○국세청장 임광현 아니, 그러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천하람 위원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것 고지하셨어요?

○국세청장 임광현 뭐가요?

○천하람 위원 국세청 내부에서 청장님하고 세무법인 선택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고지하셨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하람 위원 그거 왜 숨기셨어요? 그러면……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별 건에 대해서 결재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요, 아니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이해충돌의 원칙이……

○천하람 위원 그런데 조직이 그걸 알고 있어야……

○국세청장 임광현 규정을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천하람 위원 예를 들면 회피를 하든 기피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청장님 전관예우 논란이 있던 세무법인인데 청와대에는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여기 세무법인 선택 대표가 나랑 이종사촌 관계라는 거 알리셨어요? 대통령님은 이걸 알고 인사 결정을 하신 거예요?

○국세청장 임광현 아니, 그 친구는, 그분은 그 일을 그 전부터 해 왔던 거고 그게 어떻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제가 국세청장이 됐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하람 위원 아니지요. 정확하게……

○국세청장 임광현 중요한 것은 어떤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느냐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세청장은 개별 신고나 조사나 이런 건에 대해서 보고나 결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넘게 공직을 잘 수행을 해 왔습니다. 제가 남은 기간 어떠한 오점도 남기고 싶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러려면 이걸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셨어야지요. 청장님……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두 분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해 주시고.

○천하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아마도 이 문제는 임광현 국세청장님의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천하람 위원님께서서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하셨던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향후에 두 분이 다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람 위원 예.

○위원장 임이자 보충질의 두 번째, 국민의힘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경제부총리님,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지요, 현재 시점으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한 4200억 불 좀 넘습니다.

○윤영석 위원 4000억 불 이하로 지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아닙니다.

○윤영석 위원 정확히 한번 알아보십시오, 정확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4000억 불 수준에 거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윤영석 위원 구윤철 부총리님께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수영 위원님께서도 지금 환율과 물가가 상당히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보유고가 4600억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4000억 불대 그러니까 600억 불…… 얼마지요, 지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4200억 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영석 위원 4200억 맞습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왜냐 그러면 위원님, 그게 너무 이렇게 시장에 4000억 불 이하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윤영석 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 10년 동안 거의 평균 한 500억 불 정도의 무역흑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의 무역흑자 누계액이 거의 4000억 불 이상 그런 누계액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막대한 무역흑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환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정부의 그동안 설명도 잘 들었고 한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그동안에 통화량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통화량을 많이 발행을 했지만 그 뒤에 2023년도에 통화량을 회수를 해 가지고 지금 미국의 M2가 미국 GDP의 한 70% 정도, 그런데 지금 한국의 M2가 우리 GDP의 1.6배, 160% 정도……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 부분도……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GDP 대비로 하면 미국보다 지금 2.2배가 많은 상황이지요. 현재 통화량이 상당히 많이 풀렸다는 거지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윤영석 위원 그래서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는 것 이게 결국 원화 가치를 상당히 떨어뜨린 원인이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한국의 상황들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해외로 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또 이런 재정 확대에 따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앞으로는 통화량을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의 통화량이 계속 증가될 것이고 재정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평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환율 문제네요……

○윤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정 확대라고 하는 것이 향후에 환율 상승을 더 부추기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환율 문제네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 위원님이 4000억 불 하는 것이 틀렸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4276억 불입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4200억 불.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런데……

○윤영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점인 4600억 불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

고 있잖아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4200억 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1월 달에는 그때도 4200억 불 넘었고요.

그래서 환율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윤영석 위원 아니,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021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4000억 불’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시장에서 잘못 알려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4276억 불이라고 제가 말씀……

○윤영석 위원 그건 정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확히 말씀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통화 문제는 ETF가 한국은 최근에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ETF를 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평가가 절하됐습니다. 한데 한국이 좀 더 많이 된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중동의 유류에 디펜딩이 높은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경제의 어떤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걸로 해서 환율이 절하되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해외에 돈 나가는 것보다는요 주식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리밸런싱하면서 한국 주식을 먼저 팔아서 환전하다 보니까 그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 확대하는 부분은요 저희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경우는 그 영향이 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환율을 잘 관리해라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재정 확대가 결국은 시중의 통화량과 이런 것이…… 앞으로 첫째는 한국의 신인도, 국가신인도 이런 부분이 재정 확대가 됨으로써 국가부채 점점 늘어나지요. 그다음 한국의 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라라는 그런 전망 그리고 한국이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겠구나 이러한 부분이 자꾸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채가 이번에 추경 하고 나서도 51.6에서 50.6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국채도 1조 원 발행을, 1조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이 어려운 국민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 지원하지 말까요? 이거는 지원해야 되는데……

○위원장 **임이자** 자, 정리하시고요.

○윤영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러면 이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임이자** 자, 정리하시고요.

○윤영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윤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인 가구에 매월 약 1000만 원이 들어오는 그런 가구까지 지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이게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이렇게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윤영석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임이자** 자, 정리하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그것도 60만 원 받는 계층은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10만 원 정도만……

○위원장 **임이자** 지금 부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윤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한국은행총재 신현송 내정자지요, 그때 가서 다시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님.

다음은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위원장 **임이자** 예, 하십시오.

○박대출 위원 제가 아까 긴급재정명령 그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불쑥불쑥 뺏을 말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쑥불쑥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속기록을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속기, 들으셨지요?

○박대출 위원 ‘뺏을 말은 아니다’라는 말을 삭제하고요.

○위원장 **임이자** 불쑥불쑥 뺏을 말은 아니다?

○박대출 위원 뺏을 말은 아니다. 점잖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회의니까.

○위원장 **임이자** 예, 그걸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현안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많이 앞서고 있다. 의지가 있는 거는 좋은 거지요, 잘하겠다는 의지인데. 그런데 의지가 너무 앞서다 보니까 정책들에서 무리한 과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들을 오늘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그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갑론을박할 내용이 아니다 그런 인식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국세청장님, 채납관리단이 운영을, 아까 어떤 활동을 하나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화 독촉하고 전화 안내하고 고지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대출 위원 또 그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그다음에 일부는 현장 실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대출 위원 현장 실태 확인?

○국세청장 임광현 예, 체납자들의 실태를 한번 봐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체납이 돼 있지만 실제 생활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요.

○박대출 위원 국세청이 계획한 그 내용에 보니까 그걸 ‘생활 실태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생활 실태 확인.

○국세청장 임광현 생활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실태 확인이……

○박대출 위원 아니, 그 용어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국세청 자료에.

제가 이 부분이 걱정돼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질문을 좀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1만 명에 가까운 걸 한다는 건 체납자를 전수조사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전수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500명은 부족해서 1만 명 가까이 9500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 숫자로 말이지요, 생활 실태를 나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느냐, 실질적인 조사 능력이 있느냐, 조사 관련한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느냐? 없다면 현장에서 회한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추심기관들, 무슨 조폭들처럼 빗 받으러 다니는 그런 조폭 비슷하게 운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과를 얻으려면?

○국세청장 임광현 예.

○박대출 위원 그리고 효과를 얻지 않고, 없이 겹도는 조사를 하면 이거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자리도 양산하고 또 체납 세금도 걷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안내를 보면 정책 입안 의도는 내가 알겠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00명이 실제로 운영해 가지고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 보고 집행을 한 뒤에 여러 가지 효과나 문제점 등을 파악한 뒤에 실행해야 될 문제다, 이 사안은.

그래서 전쟁 추경이라는 이름에서는 이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전쟁 추경이든 아니든 또 본예산에 설령 있더라도 정밀한 검토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할 내용은 아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국세청장 임광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박대출 위원 이게 1만 명 일자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거 무슨 합법적인 조폭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박대출 위원 전혀 문제없이 현장에서 다니고 전화로 해 가지고 하면…… 지금 이 취지는 악성 상습체납자·고액체납자를 적발하고 그로 인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게 이 제

도의 가장 큰 취지 아닙니까?

○국세청장 임광현 예, 큰 취지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분들이 점잖게 ‘지금 체납 세금 있으니까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그 말을 듣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국세청장 임광현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박대출 위원 우려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연구해서 이 제도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박대출 위원 실행 여부를 그렇게 검토해야지 1만 명 덜컥 그냥 일자리 만들 사안이 아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국세청장 임광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저희가 매뉴얼로 다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신규 직원 데리고 시범운영도 해 보고 계속 브레인스토밍하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는 딱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강제징수 단계에서는 우리 체납정리요원들한테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실태 확인만 하고. 현재 한 3주 정도 됐는데 현재까지는 마찰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4월, 5월 진행이 되면서 현장에서 나오는 장단점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그런 걸 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실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이자 500명에서 9500명이 되는데 박대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심히 걱정되고. 하여튼 임광현 국세청장님은 논리 개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세청장 임광현 예.

○위원장 임이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딱 3분입니다.

○김영환 위원 부총리님, 지금 GDP 갭이 마이너스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마이너스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 말인즉 그것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반도체나 이쪽 영역은 오버슈팅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다 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GDP 갭 마이너스 때문에, 유효수요 부족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잠재성장을 근처로 못 가는 거고 특히나 전쟁 위기상황에 이 수요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극복하기 위한 전쟁 추정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김영환 위원 물가를 자극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경제학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잠재성장을 위로 우리가 오버슈팅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정 규모도 이거 가지고 무슨 오버슈팅하고…… 0.2%p라고 기획예산처장관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OECD가 0.4%p이지 않습니까, 떨어진다고. 그 반절밖에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잠재성장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사이에 농어민들, 아까 얘기했던 수산업 관계자들,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 저소득층 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위기를 바로 극복해야지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 다 죽고 나서 그때 돈 풀면 뭐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여건은 이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잠재성장률 밑으로 다 깔아 놔지 않습니까?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지금 잠재성장률 1% 후반대입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뭐나 하면 기계도 한 4년 쉬어 보세요. 기계가 돌아갑니까? 실질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자꾸 3~4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쉬었음 인구가 늘어나는 것 당연하고 그 사람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어떻게 복귀합니까, 3~4년씩 쉬는데? 기계 3~4년씩 놓고 있는데 어떻게 기계가 돌아갑니까? 잠재성장률 더 떨어지는 거지요. 빨리 이걸 극복해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야 우리가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진로를 제대로 방향 틀어 가지고? 그게 지금 여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 정말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 재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카네기재단도 최근에 발표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에너지 의존적입니다. 지금 이 위기를 저는 근본적인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로 삼아도, 대단히 중요한 초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도 몇 번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호주나 독일을 한번 보십시오. 위기 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에너지 자립 시설로 뉴딜들을 다 이루어 놔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생에너지로 다 전환시키고요 햇빛에너지로 다 전환시켰고요.

지금 외부효과 한번 보세요. 탄소는 예전에 가격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GDP가 2600조인데 아마 탄소가격들 지금 다 거래되니까요 음의 외부효과, 마이너스 외부효과 계산하면 얼마 될지 금방 계산돼요. GDP에서 깎아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마이너스 외부효과를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의존을 대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지금 재정경제부나 기획예산처의 큰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담겨 있지만 저는 나중에 본예산 할 때도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우리 심각한 인식은 정말 바로 좀 해서 마이너스, 음의 효과, 이게 200조가 될지 300조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로로 만드는 순간에 우리가 탄소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국가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수준조차 GDP 성장을 못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

래서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통화량 증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추경이 25조 원 하는 것은 taxpayer(납세자)들의 돈이 일반 어려운 국민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다.

○**김영환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 죄송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좀 얘기할게요.

우리가 외환보유고가—22년 5월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4500억 달러 있었어요. 4600억 달러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이재명 정부 넘겨받을 때 4000억 불이었어요. 지금은 200억 불도 더 올라갔잖아요.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접근하셔야 된다. 지금 달러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쟁 위기 이때 미국 국채, 달러 수요 늘어나는 것 알잖아요. 왜 이거 가지고 굳이 이렇게 설명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정리하시고요.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달러 관련해서 질하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다 질하입니다. 일본도 질하고요. 그런데 한국이 왜 그러냐 하면 한국은 중동 석유에 대한 디펜딩이 높다 보니까 그 요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주식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팔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국내 거주자들은 금년에 와서는 해외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려하시는 위원님들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어쨌거나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일 모니터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선 위원** 박홍근 장관님, 장관님 취임할 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언행일치가 되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예결소위 때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말씀 중에 그때 예비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래서 공개를 아마 이 정부는 할 겁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편성해라 그리고 예비비는 3조 원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4조가 있는데 무려 5조의 목적예비비 증액안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가르쳐 주셨고, 자료를 안 주셨고요. 오늘 장관님이 32% 정도라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갑자기 5조 원을 증액한다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비비 집행률을 아까 말씀한 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의……

○**이인선 위원** 전체 예산의 지금 집행률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것은 8.3% 정도라는 그 데이터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마 1월 말, 2월의 데이터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의 데이터를 주지 않아서, 데이터를 자꾸 안 주는 것도 장관님이 만드시…… 재정위원이면 데이터를 달라 하면 왜 묻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셨고요.

어쨌든 자료제출 없이 갑자기 5조 원의 목적예비비를 증액한다고 와서 이게 금액 자체로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비비 내지는 지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한테는 보여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 비용 전체가 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유별로 어떤 데 어떤 목적으로, 예산 근거를 좀 주면 좋겠는데 안 주셨고요. 하여튼 월요일날 우리 예결위가 있으니까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최고가격제도에 대해서도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는지, 유가는 어떻게 예측할지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개하기가 어려우면, 이게 공개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결소위 때 비공개라도 꼭 보여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자꾸 전쟁 추경이라고, 한쪽에서는 선심용 선거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명명백백하게 나오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거였는지. 지금 꼭 필요하다 주장하시니까 이게 응급으로 필요하다는 거였는지 선심성이었는지 알게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게 깜깜이 추경, 그냥 그야말로 거수기 추경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지책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설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선 위원 예, 해 보세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우선 예비비 관련해서는 국가재정법을 재경위에서 합의해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 또 예결위에 예비비와 관련된 사용계획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할 겁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소관 상임위 또 예결위에 예비비 사용계획 명세서 이것을 제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번 추경에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고가격제 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분기, 6개월 소요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산업부와 그다음에 전문연구기관의 추계를 여러 가지 변수까지 감안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그 원가를, 손실 원가를 철저하게 산정을 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렇게 면밀히 검증을 할 텐데 미리 저희가 여기에 얼마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담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그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원가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동안 전

문위원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세부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후에 저희가 비공개 자리에서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고요.

나프타 문제도 아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산업부에 편성해 놓은 것은 3개월 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수입단가 차액을 이렇게 해서 산업부에 한 0.5조 정도를 담아 났는데 이 위기가 얼마나 갈지는 그 누구도 예측 못 하고 또 나프타 소요 분야가 워낙 많다 보니 그걸로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의 추가를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에 담아 났다 이 말씀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영 위원 부총리님, 그래프 하나 봐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달러 환율이 별문제 없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쟁 전의 원화 하락 폭을 보면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는 오히려 올라갔고. 파운드나 유로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지요?

전쟁이 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전쟁 중, 즉 3월 달 걸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 것. 한국은행이 몇 개의 환율을 집계하느냐 하면 42개 나라를 매월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41위예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환율 하락이 제일 큼니다. 이렇게 환율 하락세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 보면 똑같이 석유 문제, 전쟁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쟁 전에도 그렇고 전쟁 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제일 많이 떨어지느냐? 저는 M2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리니까 다른 나라보다, 미국보다 2배가량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 질문할게요.

방금 박홍근 장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최고가격제 실시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유사 손실도 계산해야 되고요 얼마인지 증명해 가지고 그걸 또 보전해 줘야 되지요. 그다음에 주유소 단속도 가야 되지요. 사재기 하는 사람 없나, 품질된 것 없나, 줄서기는 어떠냐, 국제 시세하고 맞지 않는 점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점이 이런 거지요. 예컨대 아까 농민·어민 위원장님과 김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어민이, 어느 농민이 도대체 배를 몇 척이나 운영을 해서 손실이 얼마가 났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민도 마찬가지라고요. 트럭 한 대로 자영업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얼마 나눠 주고 끝낼 겁니까? 저소득층 힘들다, 이것을 다 찾아 가지고 말이지요 그걸 보전해 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물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부총리님,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것 제대로,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것을 말이지요 최고가격제가 아니고 유통세

할인 방식으로 갔으면 전체적으로 기름값이 싸지는 겁니다. 나라가 신경 쓸 필요가, 정부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민이 얼마를 쓰든 농민이 얼마를 쓰든 싸진 기름을 쓰게 되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900원 할 때…… 지금 탄력세 아닙니까, 유류세? 30%를 감안하면 1600원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법 개정해서 50%까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한 번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정부가 뭐 하러 끼어들어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딱 이렇게 기름값 전체가 떨어지면 피해 보는 사람들은 정말 별로 없을 거고 납사(나프타) 이런 것만 좀 찾아서 도와주면 되는 것을 그걸 안 하고 지금 반만 내렸지요? 최고가격제를 딱 실시하고 행정력을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추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부총리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지금 통화량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로 보셔야 됩니다. 자본시장이 발전된 선진국하고 은행 중심으로 하는 나라 이렇게 따져 보면요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중국도 높고요 대만도 높고요. 다만 자본시장이 발달된 영국이나 유로, 미국은 좀 낮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봐서 해야 되고요. 저희들도 최근에 통화량을 특별하게 늘리고 정책적으로 그런 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추경은 텍스페이어들의 돈이 어려운 계층으로 바로 안에서, 전체 통화량 안에서 이전되는, 그렇게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최고가격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류세 인하를 하려고 했는데 유류세 인하하니까 정유사들에는 낮아지는데 일반 정유소·주유소에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가격제를 설정하고 그 대신에 이번에 2차 할 때는 시장의 유가를 감안해서 한 200원 정도 이렇게 현실화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고 시장도 반영하면서 또 소비자들의 어떤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도 막아 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정유사에 재정 보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를 했다는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수영 위원** 제가 마이크 꺼져서 더 추가 질문 안 하겠지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행정력을 이렇게 갈아 넣어도 되는 겁니까? 고민 좀 더 해 보십시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예.

○**위원장 임이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M2가 한 4500조 정도 풀려 있다라고들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풀려 있는 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김영환 위원님과 박수영 위원님께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다음 신현송 한국은행총재 청문회 때 아주 불꽃 튀는 논쟁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오늘 이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

적하셨는데요 증액된 예비비의 용처별 예산액을 제시하지 않아서 용처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해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또 다 들여다보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 비공개로 하더라도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그리고 임광현 국세청장님, 본예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 개발하십시오.

○국세청장 임광현 예, 준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천하람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신상에 대한 문제니까 두 분이 따로 알아서 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예,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안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일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조인철 위원님, 박대출 위원님, 진성준 위원님, 김태년 위원님, 이인선 위원님, 박민규 위원님, 권영세 위원님, 조승래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유상범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소관 기관에서는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님, 무기질비료 증액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권영세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대출 박민규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이인선 임이자 정일영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진성준 차규근

천하람 최기상

○청가 위원(4인)

박성훈 안규백 정성호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임명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재정경제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제2차관 허장

국제경제관리관 문지성

기획조정실장 김후진

경제공급망기획관 손웅기

혁신성장실장 민경설

세제실장 조만희

국고실장 황순관

경제정책국장 유병희

민생경제국장 이주섭

정책조정관 주환욱

국고정책관 허승철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예산실장 조용범

정책기획관 박봉용

성장기획정책관 천재호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재정혁신정책관직무대리 임영진

사회예산심의관 정향우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 김태곤

복지안전예산심의관직무대리 남경철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이제훈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재정투자심의관 김명중

국세청

청장 임광현

차장 이성진

기획조정관 김지훈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김휘영
 조달청
 청장 백승보
 기획조정관 이형식
 시설사업국장 임병철

【보고사항】

○위원 개선

소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기금심사	박홍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2026. 3. 31.

○의안 회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3)

이상 3건 3월 23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5)

3월 24일 회부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7)

이상 3건 3월 25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5)

이상 5건 3월 26일 회부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4)

3월 27일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11)

3월 30일 회부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6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6)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202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9)

이상 4건 3월 31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대통령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23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총리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105호	일부개정	국가데이터처
부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7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8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1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2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4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구분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개정형태	소관부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5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6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7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8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0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1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2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3호	일부개정	재정경제부

○통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1)

3월 24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간주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음